

# 기독교학문과 사회 참여

기독교학문과 사회 참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첫째, 기독교학문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둘째로 비기독교학문으로 참여한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또는 기독교학문적 관점에서 사회 참여를 할 때의 장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 첫째, 기독교학문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기독교학문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의 사회 참여와 관계가 있다. 기독교는 종교일 뿐 세속화된 사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주이시고, 피조세계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다. 따라

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이 영역에서 제외될 수 없다. 만약 사회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사회에 참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사회에서 생활한다. 우리가 시민으로 참여할 때 가지게 되는 어떤 관점과 판단은 우리의 신앙과 관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민으로서 투표하고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 우리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 공약이 바람직하지, 혹은 정부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공약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의사를 표시한다. 또한 소비와 기부, 투자도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또 어떤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고,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살지에도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 생각과 관점은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의 한 기자가 소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소설만 쓰는가?” 그녀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와 가치규범이 자연스럽게 소설에 드러난 것이다”라고 답했다. 총신대 신국원 교수는 기독교세계관을 안경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안경에 따라 해석이 되며, 해석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고 했다. 즉 기독교와 사회참여는 뗄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학문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가? 기독교학문은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세계관을 사회 참여와 뗄 수 없듯이, 기독교학문도 사회 참여와 뗄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이 체화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한 경제학 논문에서 ‘미국에서 도로법을 위반한 외교관의 국적을 살펴보았더니,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온 의원일수록 도로법도 더 많이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행동은 본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유사한 예로, 또 다른 논문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를 연구해 보니, 미국에 이민 온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는 그들의 조상의 국적에 의해 결정되었다. 예를 들면 북유럽에서 이민 온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으나,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가정에서 태

어난 자녀들은 타인을 덜 신뢰했다. 이와 같이 문화는 장기적으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적으로 한국 문화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교별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질문에 기독교인의 32%, 천주교, 불교인의 33%, 무교인 34%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연줄이나 집안 배경이 필수인가’ 하는 질문에는 기독교인의 15%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55%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비기독교인들의 ‘그렇지 않다’ 15%와, 52%의 ‘그렇다’와 차이가 없는 수치였다. ‘떠날 수만 있으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는 이민에 대한 질문에도 기독교인의 4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역시 비기독교인의 비중과 똑같았다. ‘일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기독교인의 12%만이 ‘아니다’, 비기독교인들은 10%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적어도 세계관에 비춰 보았을 때 한국 기독교인의 특성은 비기독교인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몸은 교회에 나가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며, 안목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기독교세계관의 과잉이 아니라 부족 혹은 결핍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학문의 사회 참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도 가능하다. 기독교학문은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훨씬 많은 지적인 작업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엉성한 기독교학문으로 사회 문제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려 하면 부족하거나 치우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성을 더 배양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지, 기

기독교학문은  
일반 학문을 대체하려 하기보다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인 방향성을  
촉진 및 보완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기독교학문의 사회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문성을 배양하여 지혜롭고 균형 잡힌 사회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기독교학문이 전문성을 가져야 할까? 기독교학문은 학문적 체계를 완성하기 전에 다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학문은 다음의 3가지 S, 제시하고(Suggestive), 촉진하며(Stimulative), 보완하는(Supplementary)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일반 학문을 대체(Substitute)하려 하기보다는 일반 학문의 부족한 부분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서의 논의를 촉진 및 보완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물론,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때에는 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창조론과 진화론 같은 주제 말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분명한 정답을 찾기가 어렵다. 이럴 때 기독교학문은 일반 학문들에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서의 논의를 촉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학의 관심이 경제성장에 쏠릴 때 실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성장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이 바탕에는 정신적인, 영적(Spiritual)인 권위를 가진 말씀의 지도

가 필요하다. 여기서 비기독교적인 학문으로서의 참여와는 다른 탁월성이 발견될 수 있다.

### 둘째, 기독교학문으로 사회에 참여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

과거, 손봉호 교수(세계관동역회 이사장)님과 사회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1980년대에 이미 사회주의 몰락을 예상하셨다고 한다. 사회주의는 하부구조가 인간을 지배한다고 믿고 있다. 즉 하부구조인 경제구조가 바뀌면 상부구조가 바뀌며, 하부구조가 사회주의가 될 때 낙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 교수님은 사회주의 인간관이 잘못되어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이는 소련의 70년 사회주의 경험에서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과도 일치한다.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라는 대규모 인간 실험의 장에서 발견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주의의 건설자들이 그린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학자들은 70년 이상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 반면에, 성경의 지혜로 타락한 인간 본성을 아는 학자들은 실제적인 연구 결과가 없이도 이를 아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기독교학문이 사회에 참여할 근거가 된다.

둘째로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는 눈이 있다. 기독교세계관의 틀은 '창조-타락-구속-하나님 나라'이다. 이 시간적인 파노라마를 높이로 환원하면 창조와 회복은 높고 타락은 낮다. 즉, 창조와 회복은 지향점을 보여 주고, 타락은 우리의 밑바닥을 보여 준다. 기독교학문은 타락한 이슈를 분석하는 데도 탁월하지만, 동시에 인간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으로 회복되고 개선될 가능성과 비전을 보여 준다.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 혹은 최선을 다해서

지향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것이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은 타락한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더 바람직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평화의 사회를 꿈꾸도록 우리를 추동하는 힘이 된다. 더불어 성경에서는 이런 사회를 공평성, 효율성, 자발성을 근거로 추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앎으로 기독교세계관을 알고, 이에 기초하여 학문을 세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비전을 발견하며, 이 비전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물론 한계도 가르친다. 구원받지 못한 개인이 모여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성경적 원리가 인간 공동체에 적용된다고 해서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학문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때로는 기독교인 중에도 타락의 결과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속받지 못한 세상에 이상적인 정책이 적용되면 실효성이 없거나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윌리엄 템플 주교는 “기독교 사회 참여는 성경적 원리와 세상 현실 사이의 간격 좁히기”라고 말했다. 기독교인은 성경적 지향점을 추구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냉소적인 현실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만 내세워 아무런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순진한 이상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타락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거나 창조 세계의 비전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현실적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떠한 통찰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1990년대에 ‘생산적 복지’라는 말이 영국 전수상인 토니 블레어에 의해 정책에 도입되었다. 북유럽



에서도 이 단어가 많이 쓰인다. 그런데 그 정신은 이미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다. 신명기 24장은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그들에게 추수한 곡식을 가져다주기보다, 논밭의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 놓으라고 말씀하신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직접 노동하여 남아 있는 모퉁이를 추수해서 먹고 살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생산적 복지이자 노동적·근로적 복지이다. 인간은 일해서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일할 힘이 있다면, 와서 일을 하라는 것이다.

북한 문제는 어떨까? 나는 북한 문제를 일부러 의식하면서 기독교학문 체계를 세워 연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을 이해하고 대북 정책을 제안할 때에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기독교세계관이 배어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 정신을 대북정책과 통일 문제에 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 즉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이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이루고자 하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



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평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두셨고, 우리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셨다. 예수님은 화해와 평화의 왕이시다. 한국에서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두 가지 이견이 대립하고 있다. 선평화-후통일론과 선통일-후평화론이다. 전자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룬 다음에 통일을 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통일을 한 후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두 주장 모두 타당성이 없지는 않으나, 나는 평화 없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평화통일이 아닌 북한의 체제붕괴를 외치는 실정이다. 물론 공산주의는 잘못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를 무력을 사용해서 없애자는 주장은 평화를 지향하는 말씀에 어긋나며,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에 대한 갈망이 적은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세 번째 초점은 북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은 사유하는 학문이라기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답을 내리는 학문이다. 나는 종종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상의 자유가 없다고 말한다. 아무 제약 없이 이상적인 사회와 상황을 가정하고 '이게 제일 좋은 것이다' 하는 상상은 사회과학자로서는 잘못된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학문의 중요한 장점은 학문에 개입될 수 있는 편향을 제거하고, 객관적·공익적 관점에서 공정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지진 이후 일본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매일 집으로 모 대학 학자들의 지진 연구에 관한 진단지가 왔다. 내용인즉, 동경에 직하지진이 3년 내에 일어날 확률이 70%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을 왜 매일 집으로 보내는지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 알게 된 것은, 이렇게 매일 위험성을 알려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연구비를 많이 모을 수 있

다는 것이었다. 기독교학문의 원칙은 공정성과 공익이다. 혹시나 섞여 있을지 모르는 사익이나 이념, 개인적인 취향을 없애는 작업을 다른 학문 연구자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나 기독교학문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어떤 학문 체계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학문의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일반 학문도 그러하겠지만 기독교학문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학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방향성 제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 줄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공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독교학문이 정책결정자, 사회운동가, 시민들에 여러 사회이슈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 글 |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이다. (現)미국비교경제학회 집행이사, (前)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저서로는 『한국 사회와 기업의 경쟁력』(2012,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공저) 등 다수가 있다

※ 본 칼럼은 201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기초강연시 발표한 내용을 녹취, 정리하여 저자의 감수로 소개한다.